

# 상업공간에서 시대적 흐름을 통한 전통표현방식 연구<sup>1</sup>

서정연<sup>2</sup>

## A Study on the Diachronic Formal Change of Traditional Motif in Korean Commercial Space<sup>1</sup>

Suh Jeong Yeon<sup>2</sup>

### ABSTRACT

Since late 1960s, we have had the discourse about the way of success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al heritage. Through 60s and 70s, the formal mimesis and transformation was pretty much dominated in domestic design currents. After 80s, we could see a kind of different ways of design to deal with traditions in architectural practices. These methodology can be summarized as spatiality, abstraction and diversity. These discourses acted as bases for aesthetic and formal stream which might be needed to present the formal possibilities for various commercial needs.

Especially, the interior design field utilized those ideas in order to show korean identity for the commercial needs such as korean restaurant, korean bar, or korean costume shop. Interior designers positively adapted the ideas from architectural discourse and created their own vocabulary after 90s. Before 90s, interior designers did very representational mimesis to express korean identity designing commercial facilities. However from mid 90s they could establish new tendencies in expressing korean traditional moods. These tendencies are a focus on spatial relationship, abstraction and materiality, utilization of traditional objects and lighting method.

**Keywords:** Tradition, Motif, Spatial characteristics, Commercial space, Formal change.

---

1. 논문접수: 2009. 11. 07.; 심사: 2009. 12. 18.; 게재확정: 2010. 03. 15.

2.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156-743, Korea.  
E-mail: jysuh@ssu.ac.kr.

##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스포츠대회의 성격을 넘어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양대 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숙박시설, 쇼핑 및 위락 공간 등 상업목적 공간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확대에 따라 실내디자인의 필요성 또한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또한 이 양대 대회를 통한 공간수요는 자국민을 수요층으로 겨냥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기대와 인상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해되었다. 상업공간에서 외국방문객의 시선을 고려해야 하는 요구조건은 우리의 시각적 정체성과 맞물리며 전통의 디자인적 표현이라는 방법론으로 귀결된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 상업공간디자인의 수요에는 한식당, 한식객실, 한복점 등 업종의 성격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한옥의 이미지가 줄곧 있어 왔으며 전통한옥의 형태적 이미지를 통해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왔다. 즉, '상업공간에서의 전통표현=한옥'이라는 상징적 도식이 성립된 셈이다. 이 도식은 한옥역시 하나의 공간이며 상업공간 또한 하나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이며 즉각적인 대응관계를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자인하고자 하는 상업공간을 마치 한 채의 한옥처럼 디자인하는 수법은 기능상의 몇 가지 문제점만 극복하면 매우 용이한 방법이며 동시에 누구나 알기 쉬운 대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일차원적 도식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균열을 드러낸다. 한 채의 완성된 한옥을 그대로 보여주던 재현적 모방에서 한옥의 일부만을 차용하여 디자인하는 한층은 유적인 방법이 등장한다. 소비자의 취향을 과고들어야 하는 상업공간의 성격상 한옥을 통한 전통의 표현이라는 디자인기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그 표현방법 또한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에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상업환경에서 전통표현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한 전통표현의 변화양상을 시대적 흐름을 통해 파악하고 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함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인테리어전문지인 월간인테리어에 작품으로 게재되었으며 전통이 표현된 상업공간으로 한정하였다. 1986년 창간한 월간인테리어는 현대실내디자인 관련 간행물로는 최초의 잡지이며 매호마다 주목할 만한 신규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왔으며 이곳에 게재되는 디자인프로젝트들은 일정수준이상의 객관성을 담지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작품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통계학적 연구방법은 지양되었다. 이는 월간인테리어에 게재된 전통관련 작품들이 그 시대의 디자인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표현특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량적 대표성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표현의 시각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성을 추출하며 변화속성의 담론적 의미를 추적하는 질적인 고찰방법을 유지하였다.

연구흐름을 요약하면 2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건축에서 다루어진 전통담론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건축분야에서 1960-80년대까지 약 30년에 걸친 전통담론의 결과들은 고스란히 1990년대 전통표현의 변화와 연결되어 그 개념적 모형을 제공하는 역할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다. 3장에서는 전통표현의 변화양상을 공간, 물성, 조명 및 오브제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핵심어들은 전통표현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변화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들은 월간인테리어에 게재된 전통표현사례를 수집·고찰·분석과정 후에 귀납적으로 도출된 어휘들로서 3장 각 절의 제목이며 동시에 각 절의 결론이 기반하는 토대이다. 4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속성이 제기하는 담론적 의미를 기술하였다.

## 2. 전통논쟁과 전통의 조형적 의미변화

### 2-1 1960년대

혼란스러웠던 구한말과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분단과 전쟁의 고통, 전후의 궁핍, 그리고 조국 근대화 속도전의 등용선 등은 우리 역사의 굴곡진 매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건축에서의 전통 혹은 전통 건축은 근대화된 건축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런 단절은 건축가들에게 계승이라는 사회적 책임으로 때로는 해석이라는 예술적 요구로 바뀌어 전달되었다. 1960년대 후반 국립종합박물관(Fig.1, 1966년 기공 1971년 준공, 이하 연도표기는 준공연도임,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사용)의 전통논쟁을 시작으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전통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실내디자인에서의 전통표현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절대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또한 5·16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정부주도적인 문예운동을 독려하며 그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이기도 하다. 박물관(70년대에도 이어 국립극장, 의사당 등)과 같은 대규모 정부건축물의 설계에



Fig. 1. former National Museum of Korea(1971).

서 이런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굴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이런 관주도의 설계지침은 많은 논란과 반발을 일으킨다. 특히 1966년의 국립종합박물관의 전통 논쟁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의 계승이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 놓으며 전통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게 된다. 국립종합박물관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현대식박물관인데 법주사의 팔상전, 화엄사의 각황전, 금산사의 미륵전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디자인되었다. 게다가 이들 세 개 건물의 하부는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본떠 옮겨 놓은 것인데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영역은 기단부에 불과했다. 전통건축이 갖고 있던 장소에 대한 고려, 시대적으로 무관한 건물들의 플라주, 재료와 공법, 스케일까지 전혀 전통적이 않은 이 건물은 건축계에서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건축에서 전통의 현대화라는 화두를 던져놓았다. 1967년 공간지 1월호에는 당시 당선안에 대한 토론이 특집으로 게재되었는데 대부분 비난과 성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특집기사는 건축 및 문화계의 주요 인물들에게 의견을 묻는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중업, 김수근, 안영배, 이경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의견도 함께 개진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공간,1967.1)

- 전통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창작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 전통은 오늘의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전통과 고전은 구분되어야 한다.
- 전통은 그 시대의 기술, 재료, 사상 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전통을 어떤 시대의 것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 전통은 미적 요소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다.

위의 요약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국립종합박물관과 같이 전통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차용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이나 공법 그리고 창작의지와는 서로 모순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이미 전통모티프는 디자인의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공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2 1970년대

1970년대에서의 전통논의는 국립극장(1973, Fig.2), 국회의사당(1975, Fig.3), 세종문화회관(1978, Fig.4) 등 굵직한 공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국립종합박물관과 같은 전통모사 작품 보다는 가구(架構), 문양, 문살, 재질 등 전통건축의 의장요소가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적용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세 개의 공공건축물은 기와지붕과 같은 구체적인 모티프는 사용되지 않는 대신에 한옥의 기둥을 연상시키는 열주, 처마를 연상하는 지붕의 돌출, 문양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전통형태의 모방이나 직설적 차용보다는 열주와 처마, 석재 등과 같이 보다 추상화된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논쟁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공간,1975.5)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인한 전통건축과의 불일치, 형태에 국한된 추상화, 장식적 문양의 사용 등으로 인해 대단히 건조하고 권위적인 조형성을 보여주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따라서 전통건축의 형태를 모방하거나 모사하는 초보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변형이라는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건축형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역사, 국가, 지역, 민중, 생활 등 다양한 관점에 의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특히 공간잡지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을 중심으로 전통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으며 상당수의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60~70년대는 전통의 계승이 숙명적 과제처럼 생각되었으나 주거건축이나 상업건축처럼 일상의 건축에서 전통형태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전통은 국가적 건축사업의 주요 과



Fig. 2. National Theater of Korea f (1973).



Fig. 3. National Assembly building(1975).



Fig. 4.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1978).

제였으며 공공건축의 민족적 표상이 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전통표현은 역사와 민족, 국가와 국민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그 보수적 위치를 고수하였다.(공간,1978.5)

### 2-3 198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당위적 책임감보다는 전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80년대의 전통은 문화적 전통의 관점으로 해석되어 민속, 풍수지리, 조경 등 다양한 인접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전통과 건축가의 관계가 계승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표현이라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며 가부장적 위치를 점하던 전통은 건축가의 의식적 환경을 이루는 문화적 바탕이 되었다. 특히, 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민중건축론, 지역주의적 건축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전통을 이해하게 된다. 형태와 공간, 형태와 내용, 형식과 표상의지 등 전통을 이해하던 이원적 구조에서 형태와 형식은 과거로 공간, 내용 및 표상의지 등은 현재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비형태적 측면이 전통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80년대의 전통논의는 뿌리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보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은 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로서 인식하는 건축가들의 개인적, 예술가적 정체성의 문제이며 이는 한국인으로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의 의미를 작품 속에 심고자 하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의 전통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기보다는 개인적 감성의 근원으로서 볼 수 있으며 전통의 개인화, 내재화, 추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80년대 후반에 완공된 세 개의 문화공간과 70년대 사례와의 비교에서 보다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1987, Fig.5), 예술의 전당(1988, Fig.6), 국립국악원(1988, Fig.7)등을 살펴보면 70년대와 비교하여 한층 자유로운 조형의식을 엿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산성(山城)이미지의 기단부와 현대적인 매스를 결합시켰으며 예술의 전당은 원통형의 매스에 처마와 기둥이라는 모티프를 결합시키고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는 석담과 전돌, 마당이 등장한다. 70년대의 건물들이 지붕과 기둥, 석제라는 한정된 요소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규모면에서는 비슷하나 80년대의 건물들은 한층 다양한 모티프를 취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돌담, 성벽, 전돌, 다리, 마당 등 전통한옥의 부분이 아닌 전통 환경의 다양한 부분들이 보다 자유롭게 차용되고 있다.



Fig. 5.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1987).



Fig. 6. Seoul Arts Center(1988).



Fig. 7.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1988).

### 2-4 소결

이상의 고찰을 통해 1960년대 후반 전통사찰의 형태적 모사로 촉발된 전통논의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표현은 추상

화의 길을 걷는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60년대의 사진적 모사가 70년대는 기둥과 처마라는 한옥 구조의 추상화로 변화하였고 80년대는 다양한 모티브가 자유로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표현에 있어 70년대를 형태실험의 시기라고 정의하면 80년대는 전통적 감성을 추구한 시기였다. 따라서 전통표현은 형태적인 것에서 분위기적인 것으로, 건축적 요소에서 비건축적 요소로 그 표현의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였던 것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전통논쟁을 통해 도출되었던 일종의 공통적 방향성이 전통의 현대화였고, 현대화의 의미가 당시의 재료나 공법 등과 같은 기술적 맥락이나 디자이너의 창작의지나 미적 감각 같은 감성적 맥락과의 융합을 의미한다면 80년대 후반의 건축물들은 60년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과 일정 부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즐기치게 추구했던 전통과의 관계를 통한 한국건축의 정체성의 문제는 90년대 이후 건축계의 이슈에서 급속히 약화되며 전통문제는 디자이너 각 개인의 정체성으로 스며들며 보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본장의 고찰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2 Change of the meanings of tradition in architectural discourse from 1960s through 1990s in Korea

| 시기     | 전통의미의 변화  | 논의관련 주요건축물  |
|--------|---|---|
| 196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주의의 고양과 전통의 가부장적 위치</li> <li>• 전통의 형태적 차용과 반성</li> <li>• 감정적인 전통논쟁</li> </ul>    | 국립종합박물관<br>국립부여박물관                                |
| 197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형태의 변형과 다양한 디자인 수법의 등장</li> <li>• 형태에서 공간으로의 변화</li> <li>• 전통의 보수적 위치</li> </ul> | 국립극장<br>국회의사당<br>세종문화회관                           |
| 1980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이해의 확장</li> <li>• 현재적 의미로서의 전통</li> <li>• 작가적 감성과 전통의 연결</li> </ul>              | 전주시청사, 독립기념관<br>국립청주박물관, 예술의 전당<br>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

### 3. 상업공간에서 전통표현방식의 변화경향

#### 3-1 상업공간디자인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형태적 차이

앞서 주장하였듯이 전통표현의 문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담론에서 개인적 미학으로 대체되었으며 과거의 유산에서 현재의 창작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전통표현이 조선시대 건축양식의 보존과 승계로써가 아니라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적 미학의 표출로 재정의 된 셈이다. 전통에 대한 이러한 자리매김은 아이러니하게도 90년대 이후에는 건축디자인분야에서 보다 오히려 실내디자인분야 특히,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디자인영역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는 전통모티브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건축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고 계획에서 완성에 이르는 프로젝트기간이 훨씬 짧은 실내디자인 영역의 속성도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실내디자인분야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양대 대회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맞이 차원에서 실내디자인에서의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성의 노출은 예견된 것이었으며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유명호텔의 한식당과 한식객실은 한국적 모티브가 여과 없이 적용되었으며 이런 한국적 모티브의 형태적 차용은 80년대 한국성 표현의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한양유통사업부가 설계한

한식당 한류정(Fig.8)은 모방 혹은 모사로서의 전통표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 출입구에는 기와지붕의 일각문 형태를 모사하고 있으며 석등과 전돌벽 등 한옥의 외부공간에 있던 오브제들이 건물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식되어 있다. 특히 지붕의 조형성을 살리려고 애쓴 모습에서 1966년 논란이 되었던 국립종합박물관의 계획안과 그 조형적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설계 및 시공된 한식당인 삼청동 용수산(Fig.9)은 한층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기와지붕의 모사 대신에 서까래를 추상화한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으며 한류정의 목재가 마치 갓 지은 한옥처럼 밝은 색채를 띠고 있는 반면에 용수산은 당시에 유행하던 체리목의 붉은 갈색의 짙은 색감을 보여준다. 두 작품의 대비는 90년대의 전통표현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하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Fig. 8. Korean Restaurant Hanryujeong(1980).



Fig. 9. Korean Restaurant Yongsusan (1992).

### 3-2 공간적 관계의 중시

앞 장에서도 논의하였지만 형태적 모방이 저급한 디자인방법론으로 비판받은 후 각광받은 디자인모티브는 공간이었다. 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근대건축의 핵심개념이라는 측면과도 연관이 되어 전통건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세대들에게는 한층 친숙한 조형적 수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입공간의 시퀀스로서,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은 마당으로서 공간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과는 달리 실내상업공간에서는 공간의 흐름을 느낄 정도의 진입과정이나 마당과 같은 오픈된 공간을 조형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실내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동시에 전통공간의 일부 속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관계의 설정이다.



Fig. 10. Designer's Choice in '97 Seoul Living Design 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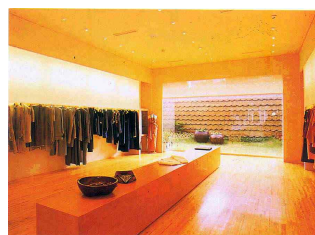


Fig. 11. Lee Young Hee Korean Costume Boutique(1994).

Fig.10은 1994년 3월 열린 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한 전시부스이다. 디자이너스 초이스(Designer's Choice)로 명명된 이 특별전시코너는 다수의 주택전문디자이너들이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주거공간을 테마로 구성되었다. '작은방+작은방=큰방'으로 명명된 이 작품은 전통건축물

의 모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 공간적 관계 즉, 마루와 방으로 구성된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흔히 나타나던 연등천장의 서까래나 주두장식의 모티브는 보이지 않는다. 마루와 방을 은유하는 두 공간은 놓인 가구와 바닥의 재질로서 그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각실의 형태적 정체성보다는 연접한 방의 관계가 보다 중요한 디자인요소로 독해되는 셈이다. 같은 해인 1994년 개점한 청담동 이영희한복집(Fig.11)에서 역시 동일한 조형개념을 엿볼 수 있다. 이전에 흔히 보이던 전통건축의 파편적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넓지 않은 매장은 마치 좌식의 마루처럼 비어져 있다. 매장 뒤편으로는 외편 토담이 보이는 데 한옥에서 내다보이는 정경을 옮겨온 듯하다. 이영희 한복집의 창호는 문살문양을 없앤 대신 한옥의 정경(情景)을 가져온 것이며 이는 차경에서 한옥의 정취를 돕으로써 형태로서가 아니라 한옥의 일부를 살짝 보여주는 은유적인 수법과 창호와 차경이라는 전통건축공간의 관계적 수법을 이용한 한층 세련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즉 바닥, 벽, 천장에서는 전통문양이나 장식과 같은 전통건축의 형태적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에 가구, 직물, 토기 등과 같이 전통 공예적 소품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전통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찰자의 시선은 지붕이나 처마와 같은 상징적 조형물에 머무르는 대신에 공간을 따라 안쪽의 깊어지는 방향으로 관류하게 된다. 이 시선의 관류는 서구근대공간에서처럼 열린 지평을 향해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루와 방의 경계나 안과 밖의 경계를 지나 결국 내부에 머무르며 공간의 관계적 배치를 감상하는 친근한 경험을 유발한다.

### 3-3 추상화와 물성의 강조

2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지만 80년대 우리나라 건축에서의 전통표현의 특징 중 하나는 재료의 윤곽이 아니라 그 표면을 통해 전통을 나타내고자 한 점이다. 대규모 공공건축이었기 때문에 화강석이 주재료이나 이를 가지고 처마나 기둥의 형태를 취하는 대신에 성벽, 사피석쌓기, 전돌쌓기, 막돌쌓기 등의 전통석축기법을 표현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90년대의 상업공간디자인 역시 물성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90년대 중반까지 전통한옥의 일부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온 만큼이나 차용된 형태의 재료 역시 원래의 재료를 표현코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서까래, 창호, 마루, 문선처럼 목재로 된 부분은 목재로서 표현하고자 하였고 벽은 창호지나 회벽으로, 방의 바닥은 장판지로서 처리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옥의 형태를 모사하고자 하는 표현의식이 있는 한 기본적으로 원래의 재료를 그대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의장적 고려사항이며 또한 한계이기도 했다. 1996년에 완공된 두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중앙병원의 한식당(Fig.12)과 해운대그랜드호텔의 한식객실(Fig.13)은 당시 90년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조형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옥의 모티브를 약간의 변형을 거쳐 차용하고 있음은 물론 원래의 재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고 있다. 즉, 형태는 어느 정도 추상화를 거쳤으나 여전히 그 형태적 상징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재료측면에서는 추상화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통건축의 재료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재현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이영희 한복집(Fig.10)은 전통건축의 형태적 요소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사진에 보이는 몇 가지 소품과 가구를 제거하면 아주 현대적인 스타일의 바닥, 벽, 천장디자인을 보여준다. 이런 추상화경향은 Fig.14의 비어바 한마당과 Fig.15의 전시디자인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한마당의 천장은 설비가 그대로 보이는 노출천장을 취하고 있어 기계미학적 디자인





Fig. 13. Korean Restaurant Dongheon(1996).



Fig. 12. Korean suite in Haeundae Grand Hotel (1996).

을 유지하고 있다. 벽체 역시 황토마감과 외편장식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평면적인 형태이다. Fig.15는 1997년 리빙디자인페어의 디자이너스 초이스전시 중 한 코너인데 침실이 장식없는 면들의 구성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추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 중반 실내디자인에서의 전통표현은 전통건축의 모티브를 단순화하여 변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형태모티브가 거의 제거되어 추상적인 구성 즉, 모더니즘적인 공간구성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단히 현대적인 이런 공간구성만으로는 전통의 느낌이 전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건축의 형태적 모티브의 차용대신에 추상화된 면의 물성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영희 한복집은 마(麻)직물위에 토벽마감을 하여 전통한옥의 외벽마감방식을 실내공간에 적용하여 독특한 물성을 새롭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재료를 재현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라기보다는 산업화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공예적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물성이라는 점에서 보다 전통적이며 나아가 예술적이다. 즉, 추상적 공간구성과 전통적 물성변화로 요약되는 이질적 요소간의 병치가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에서 새로운 전통표현의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의 미니멀적 디자인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개념적인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되는 과정에서 물성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이미지추구가 함께 발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어바 한마당은 형태와 재료간의 재현적 결합에서 벗어나 흙담과 외편, 나목(裸木)으로 된 기둥과 스테인레스 서까래의 결합 등 세련미는 떨어지나 나름대로 실험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Fig.15의 전시부스는 한자, 한지, 전통색채 등을 표면에 응용해 전통이 직접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전통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침실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Fig. 14. Pub Hanmadang(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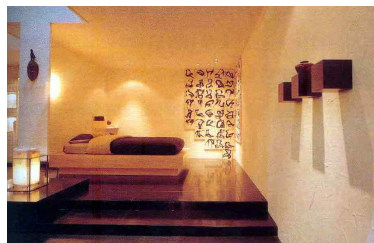


Fig. 15. Designer's Choice in '97 Seoul Living Design Fair.

### 3-4 오브제와 조명

앞의 두 절에서 살펴본 개념어들, 공간과 추상, 관계와 물성은 서로 상보적 대립쌍을 이룬다. 공간과 추상은 조형예술에 있어 모더니즘적인 속성인 반면에 관계와 물성은 전통건축의 분위기

를 살리기 위한 표현의 방편이다. 즉, 90년대 이후 실내디자인에서의 전통표현은 전통건축이나 전통요소를 변형하여 이것만을 조형적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인 형태와 공간 속에 전통적인 요소 그것도 매우 무형적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상보적 대립 요소가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통의 분위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Fig.16과 Fig.17을 살펴보자. Fig.16은 2000년 리빙디자인페어의 디자이너스 초이스 중 일부이다. 전통한식기와를 위로 볼록하게 쌓기도 하고 아래로 볼록하게 쌓은 줄도 있어 단순한 리듬감과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지붕을 덮는 전통요소인 한식기와가 지붕의 조형을 보여주는 대신에 적층되어 하나의 스크린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투명한 아크릴박스에 들어가 있어 마치 중요한 전시물처럼 보이게 처리되었다. 나무로 된 바닥과 천이 드리워진 벽이 있기는 하나 이 공간에서 기와가 없다고 가정하면 영락없는 모더니즘의 공간이 되고 만다. 또한 Fig.17의 용수산 아크로비스타점의 내부를 보면 보일 듯 말 듯한 천장서까래와 천장에 달아맨 솟 금줄이 이곳이 전통모티브를 적용한 디자인을 하였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벽과 천장의 반투명한 아크릴의 표면구성이 조각보의 패턴을 형상화하였다고는 하나 매우 추상화되어 있어 서구근대미술의 데스틸 회화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앞의 절에서 분석하였듯이 90년대 전통표현은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간의 모호한 병치 혹은 그 아슬아슬한 결합이 특성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모던한 것도 같고 혹은 전통적인 것 같기도 한 셈이다. 마치 줄타기와도 같은 이런 미묘한 상태에서 전통적인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요소가 오브제와 조명이다. 두 사례에서 관찰하였듯이 기와, 서까래, 금줄은 전통성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식시켜주는 매체로 작용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앞에 사례로 제시했던 작품들을 다시 검토하면 방식과 찻상(Fig.10), 옹기와 햇대(Fig.11), 와편토담(Fig.14)과 한시(Fig.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전통적 오브제는 전통건축의 일부를 차용한 오브제(Fig.13, Fig.14)에 비해 상업공간이 견지해야할 상업성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양성이다. 전통건축의 모티브는 자연스럽게 항상 한옥이라는 건축물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축계의 70년대, 실내디자인의 80년대 전통표현을 보면 기둥과 지붕, 문살이나 주두장식처럼 건축물에 속한 형태요소가 표현적 오브제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을 벗어나면 표현 가능한 오브제의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담이나 기와처럼 건물의 부속요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차용하되 새롭게 해석하는 조형방법이나 금줄이나 햇대처럼 생활의 기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런 다양성은 두 번째의 장점을 가져오는데 이는 구체성이다. Fig.10에서 방식과 찻상은 마치 어떤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Fig.11의 창밖 풍경은 옛 한옥의 정겨운 담벼락 정취를 옮겨 놓은 것 같다. 이처럼 생활의 오브제들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상징성이 아니라 추억이나 회고이며 바라보는 주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구체적이며 동시에 서사적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실내조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까지도 조명은 전통표현과는 결합되지 않은 채 조명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였으나 이영희 한복집(Fig.10)에서의 벽면 조명은 간접조명방식이며 반투과 커버에 의해 부드럽고 은은한 효과를 내며 전통공간에서의 은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전통표현에서 조명의 역할이 바뀐 극명한 대비는 Fig.13과 Fig.15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한식객실의 조명은 종보 아래에 펜던트타입으로 매달려 있다. 조명기의 커버가 전통문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전통조명기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아자문(亞字紋)의 일부로 장식해 놓았다. 반면 Fig.15를 보면 침대 머리맡 부근에 전통한지초롱을 연

상하는 조명기가 바닥에 놓여있고 천장의 매입등은 월워싱(wall-washing)기법으로 벽을 비추어 은은하면서도 벽면의 질감을 강조있다. 즉, 한지초롱으로 전통오브제의 정취를 주며, 기능적 조명은 촛불이나 호롱불과 같은 부드럽고 은은한 전통광원을 은유하는 것이다. 80년대의 조명이 광원과 조명기를 하나의 오브제로 생각하여 형태적 상징성을 중시한 반면에 90년대부터는 조명의 효과측면에서 한층 세련된 전통성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오히려 광원과 조명기 자체는 보이지 않거나 숨기는 경향으로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앞서 추출한 개념어인 추상화의 경향이 조명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17은 광원과 조명기의 추상화와 조명의 전통적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반투과 아크릴 후면에 숨겨진 광원은 매우 은은하고 몽롱한 분위기를 만든다. 마치 장지문을 통해 배어나오는 방의 불빛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서 작동한다. 천장과 벽 전체가 반투과로 처리되어 사실 조명은 없는 셈이며 따라서 광원은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 조명기라기 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현상적 장치처럼 매우 감각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다. 80년대 중반 전통의 표현이라는 민족적 의무감에 발로한 디자인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유교적 정통성에서 이탈하여 전통의 효과를 중시하는 감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16. Designer's Choice in 2000 Seoul Living Design Fair.



Fig. 17. Korean Restaurant Yongsusan (2004).

## 5.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상업공간디자인을 통해 본 실내디자인에서의 전통표현은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도 지적하였거니와 이런 변화경향은 실내디자인분야 단독만의 움직임은 아니었으며 90년대 이전까지 선행한 건축계의 전통논쟁의 흐름과 그 맥락을 매우 밀접하게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후반 시작된 건축에서의 전통논의는 30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논쟁의 초반에는 전통의 계승이 당면과제처럼 인식되어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재현적 모사나 약간의 추상적 변형에 경도되어 있었으나 80년대를 지나면서 전통적 형태를 벗어나 공간적 가치의 추구하고 모더니즘적 추상화, 그리고 다양한 전통소재의 발굴 등의 노력을 거쳐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전통의 이해와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처럼 추상화되고 무형화된 표현 경향이 전통의 올바른 표현방법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선호된 것이며 그렇기에 90년대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특히 건축디자이너가 비교적 오랜 시간 담론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조형적 변화를 만들어 온 것에 비해 상업공간디자인의 영역에서는 대중적인 선호와 유행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빠른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후반 시작된 건축계의 전통논쟁을 통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는 전통형태의 재현적 모사방법은 약화되고 공간을 중시하고 추상화되며 다양한 전통모티브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전통담론은 90년대 초반의 전통기반의 문화적 상품과 결합하며 이후 조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 상업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공간디자인영역에서 한국적 정체성이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디자인은 전통모티브를 적극 차용하게 된다.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도 형태모방이라는 직설적인 방법론에 의존하였으나 90년 중반이후 전통표현의 새로운 경향을 찾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공간적 관계의 중시, 추상화와 물성의 강조, 오브제와 조명의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방법론들의 개념적 뿌리는 90년대 이전 진행된 전통논의의 성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 6. 참고문헌

- 건축공간론, 대한건축학회편, 2003, 89-110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1, 82-83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1-11  
한옥공간문화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168-169  
Jean Baudrillard, The System of Objects, Verso, 2005, pp.11-66  
김봉렬, 한국성을 다시 생각한다, 건축과 환경, 건축과환경사, 1993년 12월호, 100-105  
김수근, 범태평양건축 수상기념강연, 공간, 공간사, 1971년 7월호, 33-40  
김성우, 90년대의 전통논의를 생각하며, 공간, 공간사, 1989년 12월호, 53-55  
김원, 한국현대건축의 위기, 공간, 공간사, 1975년 3월호, 19-21  
김주원, 20세기 한국인테리어디자인에 관한 비평적 고찰Ⅱ, 1999년 12월호, 130-131  
반향, 공간, 공간사, 1967년 2월호, 5-27  
살아있는 인간 전통과 현대의 접점, 공간, 공간사, 1978년 12월호, 8-11  
송인호, 한국현대건축형태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 꾸밈, 1987년 4월호, 42-50  
이경성, 전통과 창조: 종합박물관설계를 중심으로, 공간, 공간사, 1967년 2월호, 5-27  
이상해, 한국건축의 길 고전을 찾아나서자, 건축과 환경, 건축과환경사, 1994년 5월호, 114-125  
이정근, 누가 전통을 보았다 하는가. 공간, 공간사, 1988년 10월호, 59-64  
전통사회의 문화와 문화적 전통, 공간, 공간사, 1988년 9월호, 32-57  
좌담회:건축전통을 계승하는 길은?, 공간, 공간사, 1967년 1월호 6-17  
특집:제3회 공간대상 건축상 논문상10선, 공간, 공간사, 1978년 12월호, 13-58  
특집:건축에 있어서 전통계승, 공간, 공간사, 1975년 5월호, 3-26

- 특집:전통계승과 한국현대건축의 반성, 공간, 공간사, 1978년 5월호, 21-63
- 특집:한국건축 재구성을 위한 서설, 플러스, 플러스문화사, 1997년 1월호, 108-126
- 특집:한국의 근대화와 문화변동, 공간, 공간사, 1988년 7월호, 6-114
- 특집:한국성의 재규명, 건축과 환경, 건축과환경사, 1988년 6월호, 86-128
- 특집:한국의 현대건축과 양식의 문제, 공간, 공간사, 1985년 11월호, 117-164
- 특집: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심포지움, 공간, 공간사, 1967년 10월호, 8-67
- 한국의 전통공간과 인테리어디자인, 월간인테리어, 가인그룹, 1988년 6월호, 25-40
- 현대건축의 불신 그리고 국립종합박물관건립의 문제점, 공간, 공간사, 1967년 2월호, 31-33
- '94서울리빙디자인페어, 월간인테리어, 가인그룹, 1994년 4월호, 178-183

## 가구학회 연회비 안내

|                                     |           |
|-------------------------------------|-----------|
|                                     |           |
| ■ 회 장                               | 20 만원 / 년 |
| ■ 도서관회원/기관회원                        | 10 만원 / 년 |
| ■ 부회장                               | 10 만원 / 년 |
| ■ 상임이사/이사                           | 5 만원 / 년  |
| ■ 정 회 원                             | 2 만원 / 년  |
| ■ 입 회 비                             | 1 만원 / 년  |
| ■ 찬 조 비                             | 무제한       |
| <b>▶입금계좌</b> : 우리은행 1006-801-312236 |           |
| <b>▶예 금 주</b> : 강호양(한국가구학회)         |           |